

咸陽 介坪里 鄭氏宅의 小倉

申 榮 勳

1

一九七〇年 가을 慶尙南道 여러 고을의 집들을 구경하고 다닌 적이 있었다. 咸陽郡에도 발길이 미쳤다.

마침 金相朝郡守께서 池谷面介坪里에 있는 朝鮮朝 初葉의 臣儒 鄭汝昌先生(註一) 古宅을 소개하여 주어서 이 第宅을 探訪하게 되었다. 이 第宅은 十三棟의 建物群(원래는 더 많은 수였다고 함)으로 이루어졌고 後苑과 亭樹、讀書堂、家廟까지를 구비하고 있는 朝鮮朝上流社會의 典型的인 집이다.

지금도 後補나 添削 改造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비교적 잘 남겨져 있어 士大夫 第宅의 公부에는 좋은 자료가 될만한 집이다.

안채나 사랑채도 법도에 따라 配置되었고 家廟·行廊·廐·讀書堂과 巨大한 倉庫와 厠間、石假山과 花木이 있는 園庭과 碎濕法에 따르는 川石의 鋪石(造園用 語로는 鑲渾法)도 남아 있으며 大門에 紅牌가 懸額되었고 좁은 길가에 쌓인 土塀이 천연스럽게 남아 있다. 이 집에 마음이 끌리어 연거퍼 네차례나 禮訪을 하였다. 그 중의 한 行步에는 慶南地方 石造物 조사를 하고 있던 鄭泳鎬·李宗碩氏와 同行하였다. 이 때는 시

간의 여유가 있어서 동리의 집구경을 나서게 되었다. 李宗碩氏의 유혹에 따른 것이다.

鄭汝昌先生宅 골목밖 개울가 조고만 기와집 鄭克相氏(四五세)宅에 우연히 발길이 멎었다. 뚝짜지를 다듬고 세신 파와 할머님께 꾸뻑질하고 울에 들어섰다. 집은 부엌 한칸, 방 두칸에 대청이 한칸 앞퇴가 있는 조고만 규모이다. 할머님께 이야기를 부치며 퇴끝에 앉다 보니 앞마당 서편에 있는 조고만 건물이 눈에 드인다. 곡식을 담아두는 小倉이다.

穀物 小倉에 대하여 두 사람은 몇 해를 두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관심은 一·二事態 직후 寧越郡의 獅子山下 興寧寺址를 조사하던 때로 부터 시작되었다. 興寧寺址 부근 地形을 측량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니던 중에 동리 한 山家에서 보기도문 小倉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山家는 통나무로 말짱아 만든 귀틀집에, 架構式이라고 할 屋蓋構造를 갖춘 희귀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측량작업을 잠깐 쉬고 삼작문을 밀고 마당에 들어섰다. 橫梁木의 귀틀집의 양식으로 두칸의 방을 꾸미고, 귀틀집과는 동떨어지게 기둥을 세워 屋蓋를 架構하여 전체의 空間을 형성한, 귀틀집과 架構式의 折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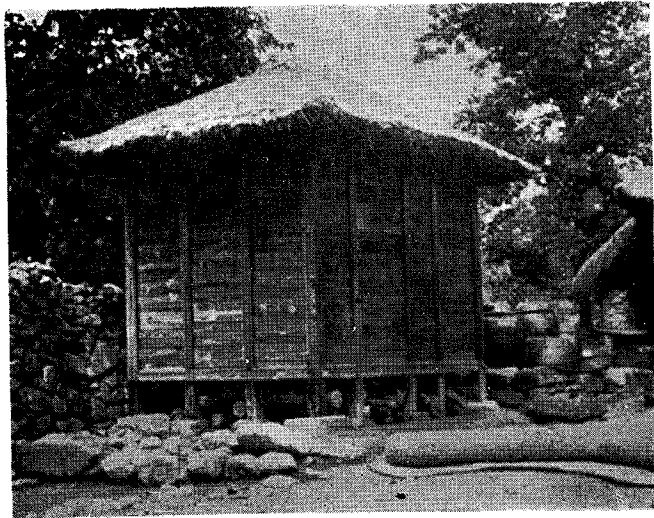
형이라고도 할 이 建物の 동쪽에 강방이를 넣어둔 두채의 조고만 창고가 나란히 놓였다.

小倉은 맛배지붕의 합각족이 正面이된 長方形 平面의 낮은 構造이다. 네귀에 角柱를 세우고 下枋을 높이 두어 壁體를 받게 하였다. 壁體는 널판지를 들성 들성 박아 겨우 강방이가 흘러나가지 않도록만 하였다. 지붕도 판자이나 어슬퍼서 겨우 雨露나 먼할 정도 로 보잘것 없다.

이 小倉에서 우리는 下枋이 땅에서 뚝 떨어져진 높이에 걸려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른바 四起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民俗工藝를 공부하고 있는 李宗碩氏는 家形土器와 木製 뒤주(斗廚)의 한 형태로 그것을 받아드렸고 古建築을 공부하던다는 筆者는 그것에서 「京」의 한 형태를 연상하였다. 여기서 두 사람의 토론이 비롯되었다. 마침내 둘이서 이런 모습의 창고를 찾는 데 힘을 합치기로 약속을 하게까지 되었다. 그 후 文獻의 기록을 조금 찾아낸 정도로 부진한 실적을 올린 우리들의 조조한 눈에 鄭克相氏宅의 小倉이 떠올랐으니 생기가 들을 수밖에 없었다.

鄭克相氏宅 小倉은 만들어진지가 아직 十年이 채 못 된다는 新造品이고 市販하는 木材를 사다가 혼란된 木手를 시켜 만든 것이므로 古態를 지니거나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고 있는 양식은 대단히 古格이어서 新造品이면서도 現代化된 구석이 별로 없는 옛 맥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다.

小倉은 그 모습이 대단히 소박하다. 이영으로 이은 우진각 지붕에 角木과 널판지로 구성된 몸체를 갖었다. 몸체는 우선 角柱 네개로 隅柱를 세우고 下枋을 땅에서 한자가량 떨어져진 곳에 통장부로 結構하였다. 四隅柱 柱頭에 역시 下枋만한 크기의 角材로 창방을 짜들



〈插圖 1〉 鄭克相氏宅 小倉

려이들로서骨組를 형성하였다.

平面은 正面이 넓고, 側面이 좁은 長方形이다. 隅柱間的 柱間에는 下枋과 昌枋을 의지하여 間柱를 세웠는데 前後面에는 間柱를 三本 세우고 側面에는 二本의 間柱를 세웠다. 間柱의 下枋 밑에는 둥발이를 바치고 隅柱와 둥발이는 自然石 주춧돌에 지탱되어 있다. 隅柱와 間柱, 間柱와 間柱사이 全柱間에는 가로 누어 쌓아올린 널판지로 폐쇄되었다. 널판지는 기둥 밑에 내리닫이로 판 개탕홈에 끼여져 고정되었다.

正面 두 곳에 開口를 마련하였다. 開口에 해당되는 柱間에는 十枚씩의 널판지를 끼어서 위로부터 차례

로 열리게 의도되었다. (插圖 一 참조)

2

鄭克相氏宅에 이웃한 介坪里 二八四番地의 鄭淳泳氏宅에도 穀間이 있다.

낮은 土塼에 연한 瓦알채의 西向한 대문을 들어서면 南向한 안채가 바로 눈앞에 있다. 안마당 동편에 서쪽으로 향한 부속건물 한채가 또 있다. 이 부속건물은 네 칸으로 구획되었다. 바라보고 서서 左端의 첫 區劃은 고간이고 그 다음은 穀間, 다음은 半間을 開放다락 드리고 農具를 두게 된 헛간이고 右端區劃은 厠間으로 만들어졌다. 이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穀間이다.

이 건물의 벽체는 씨멘트 몰탈로 泥裝되었다. 穀間 벽체도 마찬가지로 前面 一部에 角材로 실주를 세우고 널판지를 끼어 鄭克相氏宅 小倉처럼 곡식을 넣고 널수 있는 出入口를 만들었다. (插圖 二 참조)

보통 穀倉은 벽체를 板壁하나 이 穀間은 씨멘트 몰탈로 밀폐되었다. 마치 土庫처럼 만들었는데 이는 穀間이 다른 區劃에 連子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듯하다.

이 대의 穀間은 小倉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태이면서도 小倉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에 특색이 있다.

鄭汝昌先生宅에도 穀倉이 있다. 正面이 五間, 側面이 三間 十五間 규모의 당당한 건물로 法制가 정연하고 지은 솜씨가 의젓하다.

기둥은 方柱로 넓직한 礎石에 정립하였다. 柱間的 壁體는 土壁과 板壁인데 中枋以下는 板壁으로 하고 그 이상은 粉壁하였다. 挾間的 粉面 중앙에는 네모반듯한

光窓을 하나씩 내었다.

板壁은 中枋 아래에서 上下段 二區로 나뉘었다. 各段에 판자를 끼었는데 여기서는 중방과 하방과 중간 橫木에 개탕홈을 파고 널판지를 일으켜 세워 조각조각 민지들이듯이 끼어놓는 수법을 썼다. 鄭克相氏宅의 小倉 판자벽과는 구별되는 수법인 것이다. 克相氏宅 小倉이 累木型이라면 汝昌先生宅 板壁은 架構型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 (插圖 三)

架構型이라고 분류된 板壁의 수법은 高級의 것이어서 주로 公共建物에 쓰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종류의 수법을 보이는 예를 우리는 密陽 文廟 大成殿 前面 廊屋의 南쪽 벽체에서도 찾을 수 있다.

密陽 文廟 大成殿의 中門체는 宣祖年間의 後半期에 해당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추정되며 朝鮮朝 初期의 樣式과 技法을 비교적 잘 이어받고 있다고 할 만한 것이다. 여기의 板壁은 下枋과 中枋과 昌枋과의 사이에 설치되었고 그것은 各枋에 판 개탕홈에 판자를 끼우는 방식을 말코 있다. 판자의 두께는 一·五寸以上, 좁은 홈에 끼우기 위하여 판자의 上下端을 자귀로 날렸다. 널판지는 引鉅匠이가 커낸 것이고 자귀로 끝을 날렸으므로 이 판자에서는 引鉅의 흔적과 자귀의 이빨자국을 볼 수 있다. (插圖 四)

汝昌先生宅 穀倉 板壁이 이렇게 오래된 技法을 지닌 古格의 것은 아니나 樣式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런 판벽을 지닌 穀倉은 아무나 갖일 수 없는 겨조 높은 倉廩. 國家 公共의 倉庫와 같은 類型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옳을 것 같다.

鄭汝昌先生宅 穀倉은 우진각의 기와지붕이고 四起의 技法은 보이지 않고 前面 御間에 兩開하는 거대한 板扉를 달았다. 이러한 모양새는 鄭克相氏宅 小倉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鄭汝昌氏宅 穀倉과 鄭克相氏宅 小倉과는 그 用途에 따라서도 차이를 갖게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小倉은 낱알곡식을 그대로 넣어두고 고무래등으로 긁어내어 쓰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造營된 형태인데 穀倉은 가마나나 섬, 또는 구렁이나 항아리에 담은 곡식을 용기 채재어 두도록 설계된 建物이라고 구분지어 볼 수 있다.

鄭克相氏宅 小倉은 뒤주나 穀匣과 같은 용처로 쓰이던 建造物이다. 뒤주도 거대한 것은 小倉의 적은 것만



〈挿圖 2〉 鄭淳泳氏宅 穀間

큼이나 많은 쌀을 보관할 수 있었다.

3

咸陽地方 踏査에 앞서 李宗碩氏는 大邱 桐華寺 寮舍의 거대한 뒤주를 조사하였다.

굵직한 모진 기둥 네개를 세운 후에 거의 같은 굵기의 나무로 기둥의 아랫도리와 윗몸에 각각 통장부이음으로 横組한다. 이때 横組의 위치는 桎端에서 一尺 혹은 七寸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래부분이 위쪽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挿圖 3〉 鄭汝昌先生宅 穀倉

네기둥 間地에 間柱를 橫木에 세워 마치 문벽선처럼 만들고 間柱와 間柱와의 사이, 間柱와 네기둥과의 간격에 널판자를 넣어 板壁을 만든다. 板壁은 기둥과 間柱물에 개당한 내리단이 홈에累累積된다. 鄭克相氏宅 小倉 板壁構造와 같은 솜씨이다.

側面、後面과 前面의 기둥과 間柱 사이는 판자로 고정되고 間柱의 간격, 즉 뒤주 前面 御間에 해당되는 중앙부에 넓적하고 두꺼운 널장의 판자를 끼어 開閉口를 만들었다. 이 부근 개탕홈은 윗쪽에 문열이를 갖고 있어서 맨 위의 판자 고리를 잡고 연 후에 다음 판자부터 위로 뽑아 올리면 차례로 빠져 開門의 공간이 차츰 넓어지도록 마련되었다.

고리가 달린 上端 판자를 빼고 뒤주에 담긴 쌀을 고무래로 긁어내어 밭도 짓고 먹도 하면서 뒤주에 담긴 쌀이 두번째 판자를 열어야 긁어낼 수 있게 되니까지퍼내어 먹는다. 문의 판자를 빼어낼 때마다 뒤주의 쌀은 차츰 줄어들어 맨 아래의 판자를 빼고 바닥을 쓸어내면 뒤주는 텅텅 비게 된다.

뒤주 바닥과 천정에는 마루를 깔았고 평천정 위에는 시루나 소반같은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한다. (挿圖 五 참조)

私家の 소규모 뒤주는 위쪽에 문이 달려서 쌀을 위로부터 퍼내도록 되었다.

四柱豎立四杙上橫四杙下橫柱枕皆有細槽嵌木板爲牆爲底其蓋後半截釘固不動前半截爲開闔之門 (中略) 今京外中產之家 無不置大小數三具 分藏日用米豆及魚脂脯脩一切食物 (註二)

뒤주를 이용하여 饌穢를 만들기도 하였다.



〈插圖 4〉 密陽鄉校大成殿廊屋의 板壁

或柱長及樑下作斗廚上設一格饌械 則又兼二器之用也
(註三)

私冢의 뒤주가 한 해의 곡식을 저장하는 크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簡易 貯藏用器로 발달하였던 것이다. 많은 분량의 쌀을 넣어두자면 뒤주의 규모가 커지고 쌀이 많으면 문이 위에 달려서는 퍼내기 불편함으로 桐華寺 같은 뒤주에서는 편리하도록 뒤주 前面에 문을 만들었던 것이다.

小量の 쌀을 담아두고 손쉽게 꺼내 쓸 수 있게 만든 貯藏用器에 穀匣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穀匣은 곡물을 담은 方木의 層匣이다. 녀창의 판자로 말을 짚고 그것을 몇개 포개어 놓는다. 말의 크기나 층의 높이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잡는다.

먼저 다리를 노아 자리를 잡고 그 위에 몇개의 말(方檣)을 쌓아 올린 후에 頂蓋를 만들어 덮고 그 안에 곡물을 저장한다. 구멍을 아래에 뚫어 쓸 때마다 열어 곡식을 꺼내게 하였다.

穀匣은 대부분 屋內에 두나 露置하는 수도 있다. 露置할 때는 지붕을 덮고 瓦覆하기도 한다. 瓦覆을 하면 그 모습이 囪京과 흡사하게 된다.

穀匣은 옮기기에도 편리하고 크거나 적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며 쥐나 새를 막을 수 있어서 實穀을 藏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다. (註四) (插圖 六 참조)

穀匣에서 힌트를 얻어 日計曆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였다. 지나치게 많은 곡물을 퍼내어 허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달 用量을 계산하여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알맞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후에 매일매일의 분량을 끄내 쓰도록 고안한 것이다. (註五)

林園十六志의 著者 徐有渠先生이 인용한 王氏農書라는 책에도 穀匣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 末尾에 割註를 달았다.

露置之匣與囪京同其用 其制底大一層須客數十斛(下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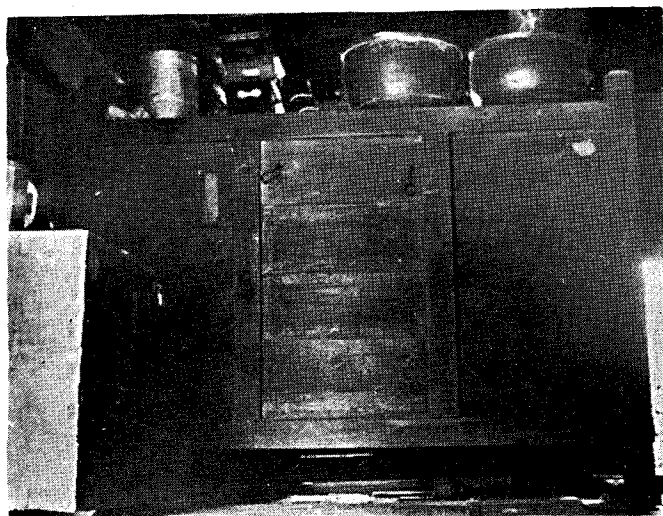
穀匣을 露置하고 覆蓋하였을 때 그 모습은 囪京이라는 시설물과 흡사하다는 의미가 이 글에 내포되어 있다.

다. 穀物을 담겨된 獨立된 建造物에 囪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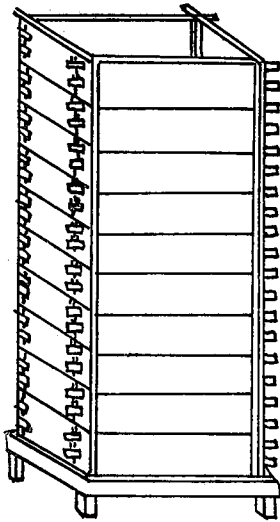
4

독립된 건조물로 곡식을 담은 囪京은 穀倉일 것이다. 倉이란 글자는 보통 穀藏의 시설물을 의미한다. 앞서 林園十六志가 소개한 王氏農書에 倉에 대한 설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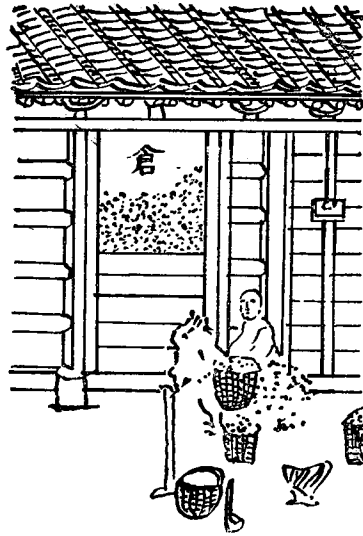
倉穀藏也 釋名曰倉藏也 藏穀物也



〈插圖 5〉 大邱桐華寺 뒤주



〈挿圖8〉穀匣圖



〈挿圖7〉倉圖

王氏農書에는倉을圖解한 그림도 실려 있다. 일부만을描寫하고 있어서倉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그려져 있는 모습에서 보면 그것은 기와를 덮은單層의 건물이다. 처마 밑으로方形의角柱를 세우고柱間에間柱를 또 세운 후에 그 거품에 판자를橫架하였다.御間에는間柱 사이에開口部를 내었고間柱 안통으로개당홈을 파고 판자를橫架하였다.間柱와方柱와의 사이에는帶木을 네개 끼우고 그 거품엔 판자를 끼어궁판처럼 하였다(挿圖七 참조)

鄭汝昌先生宅倉庫처럼 여기의倉도板壁이나 그 벽체의 구성 방식은 서로 달라農書의倉은鄭克相氏宅小倉과 같은 수법으로 처리된 것이다.

倉에는 여러가지의 종류와 그 이름이 있다.廣雅釋言에 의하면 창고로

京庚康鹿廩圖困

라는 종류가 있다고 한다.王念孫은 창고의 종류에 따라 그 형태를「疏證」에서 정리하고 있다.

說文圖謂之困方謂之京管子輕重了篇之有新成困京者二象史記倉公傳見建家京方石徐廣音義云京者倉廩之屬釋邱云四貴四陵四起曰京義與方倉謂之京同也(下略)

四起라고 하는注目되는用語가 설명되어 있다.四起라고 하는 의미는又玄高裕變先生이高床式이라고命名한것처럼建物の床이地表에서 떨어진 높이에서結構되는樣式을 일컫는 것으로 앞에 소개한鄭克相氏宅小倉이나寧越法興里의興寧寺址 부근의

山家에서 본小倉이나桐華寺 뒤에서 볼 수 있었던 형태와 같은 것이다. 쉽게 꼬집어 말한다면 원두막이나루마루처럼마루를 높게 만든 다락집의 한 형태를指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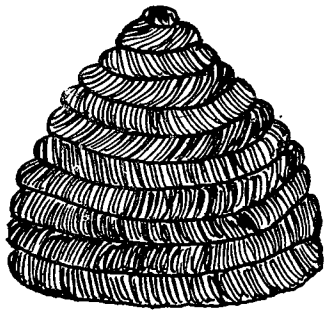
마루를 높게 만든 다락형의方形平面穀倉을京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四起曰京」의 해석이 되었고그 형상은「圖謂之困」이라고 한困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方形平面에四起한양식을 갖춘鄭克相氏宅小倉은저와같은比定에 따라「京」이라고 할 수 있겠고그小倉을「京」이라고假定하여부르기로 하겠다.

農書에 같은橫架板壁이나四起하지 않은 형태라고하여「倉」이라는 이름을 붙쳐「京」과 구분하고 있다.鄭汝昌先生宅大倉은鄭克相氏宅「京」과 다른 모습이므로 그것이 같은穀倉이라도「京」이라는 이름으로는불리어질 수 없다고 일단생각해 두어야겠다.鄭汝昌先生宅大倉은다른 이름의 창고일 것이다.

山林經濟의著者는倉庫를 만드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凡倉庫를 조함에 須倉庫는 前庭으로 面하고 水、倉庫門에 朝窓을 宜好타 하나니 四方平居로 戶를 開하고 坐窓야 見窓處의 五六丈의 距離에 庫舍를 作함에 間數의 多小는 不同하나 其法은 爲先 柱를 立호야 樑은 上호고 椽을 架호나 然而 椽頭에 簷을 出호야 短호기 纔히 數寸에 止호고 次에 板門의 容을 設호야 土石으로써 柱外의 四面을 周圍호고 堅厚히 場上에 築호야 椽底에 至호고 全히 壁을 不用호고 又椽上에 撒子를 布호고 泥를 塗호기 五寸許호되 見此를 望호에 一土阜와 如호고 少許호도 木을 露出호는 隙이



〈挿圖9〉 廩圖



〈挿圖8〉 廩圖

無_후 然後에 石灰黃土를 用_하야 細히 榆汁에 和_하야 法에 依_하야 泥를 作_하고 厚히 四面의 牆壁及屋上의 晴晒兩蓋를 塗_하고 充分히 堅乾함을 待_하야 甌과 如히 和_하고 別로히 椽木을 用_하되 屋上에 疊加_하고 又 撤子를 布_하야 茅를 蓋_하며 乃 厚板으로 門扉를 作_하나니 扉下에 猫兒의 穴을 通_하고 門板에 釘으로 雙排目_하야 其牢固를 極_하며 庫內地面에 綿密히 磚石을 布_하고 石灰로써 法에 依_하야 塗架_하나니 則鼠의 穿人窟이 不能_하고 費用을 不_하惜_하고 此法을 用한 즉 火災를 不_하致_하고 萬全_하니라 (朝鮮博物志에 의한)

이 창고의 형태는 板壁과 요소에 다소의 차이점을 갖었지만 鄭汝昌先生宅 大倉의 모습과 흡사함으로 역시 「京」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林園十六志에서 이런 형상의 倉庫를 「土庫」라고 이름지었다. (註六)

地庫라는 이름의 창고도 있었다. 그것이 「土庫」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史草를 두던 史庫이었다는 점에서 혹은 「天」庫에 대한 「地庫」의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地庫라는用語는 星湖僊說에 보인다.

竹泉閑話云 柳眉庵希春及見地庫所藏前朝史草 有王幸之辨云云 地庫者定都漢陽之後 移藏勝國之史草者也 壬辰之變 倭未入城 爲亂民所燒(下略)(註七)

史庫는 보통 다락집의 형태이다. 宮內의 史庫나 書庫등 書籍을 보존하기 위한 집들은 四起型의 樓舍로 습기를 피하도록 의도되었다. 간혹 昌德宮奎章閣처럼 宙合樓下에 書庫를 일시 마련하였던 일도 있었다. (註

八) 地庫라는 이름의 書庫類는 이런 형태를 일컫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林園十六志는 倉庫의 종류를 또 설명하고 있다.

蔭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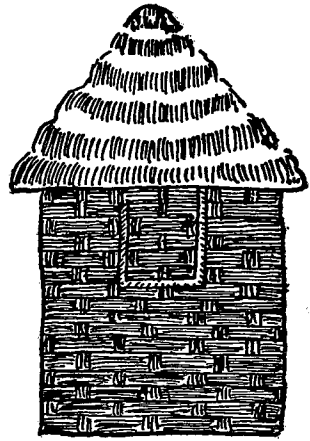
蔭庫在庫之下 亦名複庫 如欲作複庫 上庫地乎勿鋪甌 循牆之限闊之一丈二尺 四壁削治平直 貼壁築甌 上鋪厚木板密排合縫 則在上庫爲廳板 在蔭庫爲天板也 上庫門闊側近 穿廳板作六四五尺 可容 瓮瓮出人 木作長梯斜倚穴口 以便登降 益蔭庫處 在地中便一窖藏多溫夏涼 可藏酒漿菜菓瓜一切 禁凍忌微之物驗(註九)

搬庫

搬庫之制 四柱八檣 柱長七尺 檣長六尺 四檣在上橫嵌 柱頭以代樑 四檣柱下離柱跟三寸 橫嵌以受廳板 前面正中爲門 椀相距二尺五寸 左右後三面及門椀左右皆密排木板爲壁 板長六尺五寸 上戴上檣下植下檣 皆槽舌嵌固分壁之長 用細木條 橫設爲帶鐵釘 釘固上縛之上橫排木板兩頭 檣檣鐵釘 釘固是爲廳板 廳板之底鐵釘 釘固以禁板(中略) 柱上架以一棟 棟長與前後樑齊棟上鋪細椽 椽上鋪氣簾 簾上苫蓋 覆屋上 上以庇風雨蓋 其制輕山無異櫃藏 可以隨地搬運 故曰搬庫(下略)(註一〇)

이어서 林園十六志에 穀倉 廩과 庾·廩·京에 대한 설명이 있다.

(前略) 今農家構爲無壁高屋以儲禾穗及種粒之種即古之竈也 唐韻倉云有屋曰廩 倉其藏穀之總名而廩庾又有



〈插圖 10〉 困圖

屋無屋之辨也

版築이거나 냇돌을 놓은 基壇 위에 自然石의 주춧돌을 定礎하고 동구리 나무로 기둥 세우고 軸部와 壁體의 시설 없이 연등천정의 초가지붕을 덮는 헛간처럼 생긴 건물로 낮가리나 구력등을 넣어 두게 만든 것을 일컫는다. (插圖 八 참조)

庾

鄭詩箋之露積穀也 集韻庾或作廩倉無屋者 詩曰會孫之庾 如抵如京 又曰我庾維億蓋謂庾積穀多也

노적가리를 말한다. 노적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는 두가지로 쓰고 있어 하나는 윤곽을 둥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치 맛배집처럼 모지게 쌓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平面을 등글게한 모습을 圖示하고 있다. (插圖 九 참조)

困

困圓倉也(中略)說文廩之圓者謂之困 方謂之京(中略) 西京雜記曰曹元理善算困之穀數類而言之則困之名舊矣 今貯穀圓也泥築其內 草苫於上謂之露箔者 即困也

困(困)은 江原道地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구마나 감장이 곳집과 비슷한 형태이고 湖南地方의 벼 넣어두 는 시설과 비슷하다. 堤川地方에 圓形平面에 土塹하고 이엉을 이은 곳집이 있어 최근까지도 볼 수 있었다는데 筆者는 찾아가서 허탈을 쳤다. 감장이 대나 싸리로 엮 어 담을 만들고 이엉을 덮은 困은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흔하다. (插圖 一〇 참조)

鄭克相氏宅 小倉과 그 모습이 같다는 京이라는 穀倉 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일까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京을 설명한 그림이 漢三才圖繪와 王氏農書와 林園十六志에 소개되어 있다. 그중 王氏農書의 그림이 비교적 정확하다. 우선 京을 설명한 記錄부터 보자.

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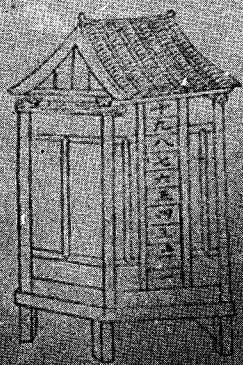
京倉之方者 廣雅云字從宀 京倉也 又謂四起曰京 今取 方而高大之義以名倉曰京 則其象也 夫困京有方圓之別 北方高亢就地 植木編條作屯 故圓即困也 南方墊濕離 地 嵌板作室 故方即京也 此困京又有南北之室 庶識者 辨之擇而用也

기록과 함께 소개된 圖面의 京의 형상은 다음과 같 다.

角柱로 기둥 네개 세우고 上下에 橫木을 結構, 空間 을 이루었다. 空間의 平面은 前面 柱間이 넓고 側面 柱

間이 좁은 長方形, 柱間마다에는 板壁을 드렸다. 前面 中央에 문벽선 세우고 十枚의 판자를 橫疊하였다. 판 자들은 문벽선에 판 개탕홈에 따라 開閉하게 되었다. 바닥엔 마루를 깔듯하며 마루를 깔았을 귀틀은 地表 에서 똑떨어진 위치에 있어 이른바 四起의 양식을 보 이고 있다.

지붕은 맛배의 기와지붕이고 합작에는 박공달고 판 자로 합작벽을 만들었다. 처마 밑에 동구리 나무가 보 인다. 도리의 역할하는 部材같기도 하다. (插圖 一一



〈插圖 11〉 京圖

《別表》 鄭氏宅小倉과 農書京과의 對比表

區分		鄭氏宅小倉	王氏農書의 京
類型	樣式	屋蓋 壁體 形式	草苫 板壁 四起式
	屋蓋	構造形態 用材 天井	覆瓦 木架草葺 木架瓦葺 未詳
	壁	平柱 間柱 昌枋 道里 下枋 壁面 開口處 開閉板 開閉窓 結構	方柱4本 方柱4本 角材正面3本 角材正面4本 角材 角材 丸材 角材 板壁橫疊 1個所 10枚 개탕窓 장부이음
基盤	床形 礎石	板床 自然石	未詳 未詳
	其他	塗彩 白骨	未詳

참조)

이 그림과 鄭克相氏宅 京과를 비교하여 보면 小異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표로 만들면 別表와 같다.

對比한 十九個 項目中에 王氏農書 圖面에 나타나 보

이지 않는 未詳處 四個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제외 한 十五個 項目중 同一한 것이 七個項目이고 相異한 점 이 八個項目이다. 相異한 八項중 규모나 用材에 따른 차

이에서 생긴 것이 四個項, 技法에서 차이난 것이 二個

項, 나머지가 二個項目이다. 지붕을 우진각이나 광배로

하였기 때문에 생긴 차이와 조가와 기와의 차이로 생

긴 相異는 사실 對比될 성질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鄭氏宅 小倉과 王氏農書의 京과는 技法上 차이가 있는

두 가지만이 相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十五個項

중 十三個는 同一할 수 있다는 성격의 것이므로 鄭氏

宅의 小倉도 王氏農書의 京처럼 「京」이라고 불려도 좋

을 말한 것이라고 하겠다. (插圖 一一)

鄭克相氏宅 穀倉을 「京」이라고 불려도 좋다고 하면 곧 聯想되는 한 句節이 있다. 三國志 魏書 三〇卷 東夷傳의 高句麗傳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곧 그것이다.

無大倉 家家自有小倉 名之爲桴京

高句麗에 桴京이라는 家內 小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桴京이 「京」과 어떠한 關係를 갖긴 것이고 어떠한

성격이냐가 궁금한 것이다. 文獻에 보이는 記錄만으로

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으므로 그것을 밝

혀볼 도리가 없는지도 알아 보고 싶은 것이다.

桴京이란 用語가 어떤 것인가 부터 살펴 보는 것이 그

것을 찾아 보는 순서가 되겠다.

5

桴京이란 用語의 桴字를 字典에 찾아보니

「設文解字」桴棟也

「爾雅」釋言棟謂之桴 注謂屋脊也

「文選」西都賦列桴棟以布翼 荷棟桴而高驪

桴라는 글자에는 棟이라는 의미 이외에 倉廩을 뜻하는 字意는 없고 桴京이라는 用語를 찾아보니 그런 名詞도 없다. 桴京이란 이름은 漢文으로 表記되었을뿐 漢語는 아닌 모양이다. 稻葉岩吉氏도 桴京이란 名詞가 중국말에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桴京은 고구려의 독특한 이름이라는 것이다. 고구려의 固有한 倉名을 漢文으로 表記하기 위하여 造語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고구려의 고유명사를 漢人들은 자기들 글에 소개하기 위하여 訓譯하거나 字音이나 字意를 좇아 造語하는 수가 있고 그 한 예가 溝瀆라는 名詞라고 한다. (註一一)

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 爲幘溝瀆 溝瀆者 句麗名城也 (註一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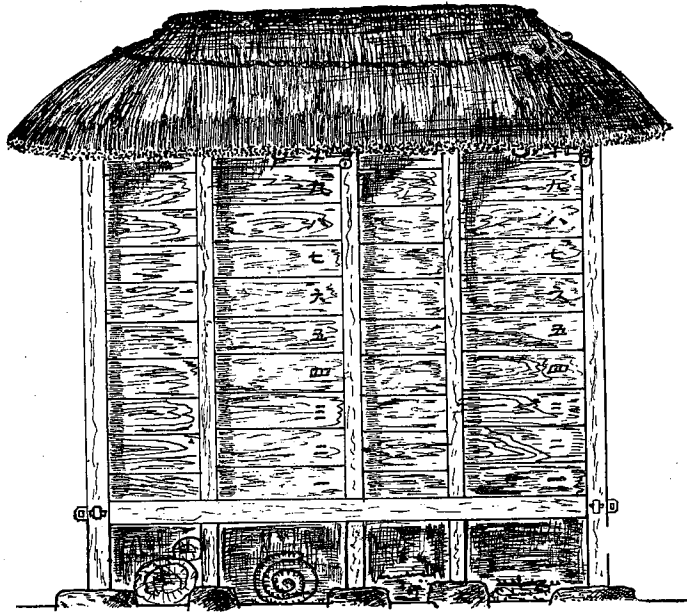
城의 高句麗 이름은 溝瀆이고 漢人들은 高句麗의 幘城을 표현하기 위하여 幘溝瀆라는 造語를 만들었다고 한다. 桴京도 이와같이 京이라는 倉廩을 의미하는 글자에 高句麗인들이 부르는 창고의 이름을 차용하여 複合單語를 만들어 桴京이라는 造語를 만들었다고 한다. 桴京은 순수한 고구려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漢語의 單語도 아닌 그런 用語인 셈이다. 桴京이라고 표기된 고구려의 이름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註一二)

고구려 桴京은 倉廩의 일종이고 四起의 樣式을 갖은 京의 모습을 일컫는 명칭이므로 桴京의 형상은 四起

양식을 갖인 어떤 형태의 건물이었을 것이다.

四起의 樣式은 濕地를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高床形의 建物을 위하여 발달한 것이다. 이런 高床의 집은 百濟에도 있었다. 後魏書에 「百濟其民上著地多下濕」한다는 표현에서 「上著」하는 高床建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朝鮮賦에 「以基多高故須梯升」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서 基를 띄 높게 하여 「須梯升」하게 되었다는 記文에서도 高床建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床式 建物은 海洋建物樣式의 특색중의 하나이며서



〈插圖 12〉 鄭克相氏宅「京」實測圖

中國의 南方에도 高床式建物이 分布되어 있다. 舊唐書(卷一九七)에 「人並樓居登梯而上」이라고 한 것이 그러한 高床式建物로 百濟의 「須梯升」住居와 같은 형태의 것이다. 中國에서는 이런 종류의 집을 「干欄」이라고 불렀다. 「干欄」은 自然의 樹木을 의지하고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魏書(卷一〇二)에 「依樹積木以居其上名曰旱蘭干蘭大小隨其家口數」한다는 기록이 그런 점을 지적하여 주고 있다. 식구에 따라 空間의 크기가 결정 되면 空間을 형성하기 위하여 樹上에 積木하여 居處를 마련하였다. 積木하여 만든 空間의 高床式建物을 「旱蘭」 또는 「干蘭」이라고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干蘭」이라는 이름의 住居建物은 四起한 高床에 積木하여 空間을 형성한 그런 형태를 갖는 것이다. 積木이란 나무를 포개어 쌓아올린 모습을 의미한다. 나무를 늘려 쌓아올려 空間을 構成하는 집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魏略曰 其國作屋橫累木爲之(註一四)

辰韓의 住居形態를 묘사한 글이다.

橫累木하여 作屋하는 집의 형태를 우리는 「말짚을 귀틀집」이라고 부르며 略稱하여 「귀틀집」이라고도 한다.

귀틀집은 北歐 三國과 獨逸、露西亞、北美洲、中國、印度、土耳其、日本の北海道地方에도 分布되어 住居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咸鏡南北道、平安南北道와 江原道地方, 그리고 太白山脈, 小

白山脈과 智異山麓 등에 분포되어 있어 지금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魏略에서 소개하였듯이 辰韓地方에만 귀틀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全國에 걸쳐 귀틀집은造營되었던 것이다.

「干蘭」式 累木作屋하는 형태가 百濟의 「須梯升」家屋形態와 같은 계통의 것이라면 百濟땅에도 분포되어 있는 귀틀집이 그런 住居의 한 모습이겠고 귀틀집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干蘭」은 高句麗에도 있어 三國全域에 분포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 볼 수 있는 귀틀집은 그 형상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 한가지는 귀틀집의 바닥이 地表에 밀착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귀틀집의 바닥이 地表에서 뚝 떨어져 높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前者는 온돌이라는 建築組織의 등장으로 一般화된 住居用 建物이고 後者는 주로 倉庫로 사용되는 建造物이다. 後者의 예를 지금도 平北과 平壤 부근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창고는 보통 곡물을 넣어두는 곡간으로 쓰인다. (註一五)

四起한 양식이 高床式이고 高床式은 百濟住居의 한 형태이며 百濟의 住居는 中國南方의 「干蘭」이라는 樹上의 집과도 비슷한데 「干蘭」이 積木으로 空間을 構成함으로 그 積木의 수법은 우리나라 辰韓을 위시하여 全國에 분포된 귀틀집과 같고 귀틀집에는 辰韓의 그것처럼 바닥을 地表에 대고 있는 것과 오늘날 平壤 부근에서도 볼 수 있는 高床式의 것이 있다는 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6

京이라는 穀倉은 四起에 方形平面을 갖고 板壁한 모습이라는 것에 특색이 있다. 京의 板壁은 발달된 도구

와 혼련된 木匠이 있어야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도구가 아직 발달되지 못하였고 혼련된 木匠이 흔하지 않던 시기에 板壁을 하려면 引鉅匠이 割木한 長材의 半割木을 쓰던가 등구리 原木를 적당히 손질하여 그대로 사용하던가 할밖에 없었다. 原木를 長材로 쓴다면 結構技法上 그것은 말짚음이 될 수 밖에 없고 말짚음이 되면 그것은 곧 귀를집이 되고 마는 것이다.

四起한 樣式에 方形平面을 갖고 말짚음의 木製壁을 만들면 그 형상은 平壤 부근의 穀倉의 모습과 똑같아진다. 결국 이 형태가 「京」의 古形이라고 하겠다. 귀를집이 辰韓에 있었다는 기록을 좇으면 「古形」의 下限이 辰韓까지로 소급될 수 있다. 辰韓과 같은 시기에 平壤 부근에 자리잡고 있던 나라에 「京」의 제도가 있었다면 그 모습은 「京」의 「古形」과 같았을 것이다.

京의 「古形」을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遺形이 있다. 家形土器라는 燒造工藝品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작품들(註一六)은 대부분 四起樣式的 高床式 모습을 하고 있어서 京의 「古形」이라고 보아온 형태와 흡사하다. 家形土器는 대부분 三國統一 以前의 新羅時代에 제작된 것이라고 추정되어 오는 모양이니 京의 「古形」은 三國時代에선 벌써 倉廩의 형식으로 固着되어져 있었다고 하겠다.

高句麗時代 古墳에는 當代 社會를 엿볼 수 있는 여러가지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壁畫가 있어 유명하다. 壁畫에는 城廓·宮室·住居 등의 建築도 묘사되어 있어 당시의 建築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麻線溝의 第一號 古墳에도 벽화가 있고 南쪽 側室 上部에는 우진자의 지붕을 가진 建物이 描寫되어 있다. 간단한 내용으로 소개된 조고만 素描圖一枚 뿐이어서 뚜렷하지는 못하지만 그 建物은 四起樣式에 굽

직한 長材 통나무 명에창방을 橫架하고 위로 말을 짜올려 귀를집을 만들었다. 귀들은 돌로 구분되어 약간의 사이를 두고 雙室이 나란하다. 雙室 前面 中央에 각기 廳갈기도한 開口部가 묘사되어 있다.

우진자 지붕에는 별다른 윤곽이 강조되어 있지 않고 용마름에 飛翔하는 鳥翼形의 것이 두개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四起부분은 굽은 통나무로 여섯개의 短柱를 세웠는데 隅柱는 左右端에 하나씩만을 그렸고 가운데의 기둥 四本은 二本씩을 並列하였다. 短柱의 바닥에 마치 소반다리 밑에 걸죽한 족등을 신기듯이 명에창방만한 굽기의 통나무를 가로질러 받쳐놓았다.

建物の 前庭에는 수레처럼 보이는 車具가 한들 놓였다. (插圖一三 참조)

이 建物圖는 高句麗古墳의 壁畫에서는 아직까지 볼 수 없었던 樣式을 보이고 있다. 基壇 같기도한 四起의 윤곽도 殊異한 것이고 한 지붕에 雙室을 構造한 귀를집을 表現한 것도 注目되는 것이다.

四起의 基壇같은 構成은 百濟의 호박형 초석을 갖았던 金正基氏는 이 建物圖를 소개하면서 雙倉의 一種인 倉庫建物인듯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雙倉이라는 점에서 「日本 奈良市에 있는 東大寺의 所謂 正倉院이라고 불리는 귀를집 倉庫가 원래는 雙倉이었다는 점」(註一七)과 비교되는 흥미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麻線溝의 建物圖가 倉庫라고 하면 그것이 四起한 方形平面의 建物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귀를집이라는 점에서 「京」의 「古形」이라고 보아온 것과 大同小異하고 三國時代의 「古形」京을 反映하고 있는 家形土器의 背景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무엇

보다도 그것이 高句麗時代에 그려진 建物圖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高句麗時代에 그려진 그림이 「京」의 「古形」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곧 高句麗의 「京」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大倉이 없었고 小倉만이 있어 그것을 桴京이라 하였다면 高句麗의 「京」을 桴京이라고 하여도 크게 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麻線溝의 雙倉圖가 桴京의 一種을 圖示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咸陽 僻地 鄭克相氏宅 조고만 小倉 「京」이 이제까지 이름만 들어오던 高句麗 「桴京」의 모습을 찾아내는 열쇠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麻線溝의 建物圖가 穀倉이 아니고 다른 用途의 建造物이라고 하더라도 「桴京」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가령 「京」이 낱알곡식을 넣게 마련된 穀倉의 이름으로 王氏農書에 전하고 있으므로 麻線溝의 桴京처럼 생겨 낱알 곡식보다는 가마나 다른 용기에 담은 穀物을 넣은 用途로 쓰여 鄭汝昌 先生宅 창고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면 그것이 「京」일 수 없고 따라서 桴京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 문제는 桴京이라는 小倉의 형태가 꼭 한 종류뿐이나 그렇지 않으면 몇가지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느냐, 또는 「小倉爲桴京」이라는 倉의 概念이 單純한 것이냐 包括的인 것이냐에 따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것이다.

王氏農書의 「京」이라는 형태의 정의가 四起方倉이라는 규정뿐이지 낱알만 넣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우리가 鄭克相氏宅의 小倉, 桐華寺의 뒤주 등 비교적 최소규모에 가까운 예를 검토하여서 舉例된 유형이 우연

히 남일을 담겨졌기들이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꺼지게된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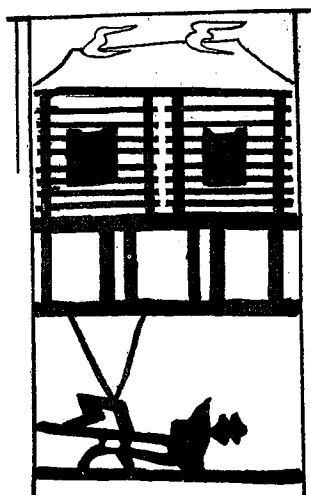
京의 규모가 壁畫에 보이듯이 크다면 開口部로 쌀가마니채 출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四起万者의 京의 형태를 일부 변경하여 穀物以外の 財貨를 보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京과 桴京과의 공통점은 四起의 方形 平面이라는 점에 그 根幹이 있다고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는 해소되리라 고생각한다.

7

高句麗의 桴京중의 한 형태인 麻線溝式 雙倉은 日本의 校倉이라고 부르는 倉廩의 모습과 흡사하다.

校倉은 倭名類抄(卷十)에 보이듯이



〈插圖 13〉 麻線溝 第一號墳 建物圖

校倉 藏穀物也 阿世久良이라고 하는 穀倉이고 甲倉, 又倉의 別稱과 「アゼクラ」(阿世久良)라는 이름도 갖었다. 「アゼクラ」라는名稱은 校倉의 만들어진 모습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狩谷木夜齋는 그의 類聚箋注에서 설명하고 있다.

甲倉見法隆寺資財帳 西大寺資財帳及主稅寮式 校倉之名未見所出 下學集又庫訓安世久良 新猿樂記作又倉 谷川氏曰阿世交也 交溝材以爲壁 故名 按交訓阿也與 糾訓阿左原倍流同 今造作家屋有阿世利波米 象校倉歷錄之狀也

「アゼタラ」란 이름은 귀를 집 말짖은 신기한 모습에서 얻은 것이므로 이 名詞에는 藏이나 穀倉이라는 의미, 京이나 廩 등의 語意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法隆寺나 東大寺에서 이런 집이 지어지던 시절까지만 하여도 이름을 부여할만큼 土着되지 못한 外來의 요소물 지니고 있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東大寺에 있는 校倉을 一名 正倉院이라고 부른다. 正倉院志는 正倉院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正倉院은 大和國奈良市 東大寺 大佛殿의 西北에 자리잡고 있다. 倉은 東向하였고 間口가 一八間 八寸強、奥行이 五間一尺二寸、높이는 五間、床下の 높이는 九尺의 규모이다. 四起의 양식으로 床下에 기둥이 列柱하였고 몸체는 二等邊三角形의 長木으로 말짖아 귀를 집을 만들었다. 지붕엔 기와를 덮었고 倉內는 北·中·南三部로 區劃되었다. 入口는 一部에만 있고 西開하는 문이 달렸다. 內部는 천정까지 넣어 三層으로 만들

어졌다. 平時엔 入口에 계단이 없지만 開倉時에는 따로 만들어 두었던 계단을 설치하여 升降하도록 한다. 正倉院이란 이름은 主要한 창고라는 뜻으로 불리어지는 것이다. 倉은 원래 二倉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최초에는 이것을 雙倉이라고 불렀다. 雙倉北雜物出用帳(正倉院古文書)中 天平寶子五年(西紀七六一年)의 文書에 藥品을 雙倉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보아 적어도 이때까지는 雙倉인 채로 있다가 이후에 변형하여 三倉이 되었던 것인가 보다.

正倉院이라는 校倉이 雙倉이었다는 정보는 대단히 유익한 것이다. 麻線溝의 雙倉과 相應하는 것이고 高句麗 倉廩의 한 제도를 볼 수 있는 자료를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日本에는 귀를 집이 樺太地方에 많고 그 지방에서는 住居用으로 쓰였고 모습도 일반적인 형태(註一八)이었을 뿐이고 本土에서는 住居用으로는 널리 쓰이지 않았고 「主として 倉庫建築である」(註一九)라고 하듯이 倉廩의 用途로만 쓰여진 일종의 특수한 건물로서 조명되었던 것인 듯 하다.

校倉이란 창고건물의 日本式 固有名詞가 없어 「アゼクラ」라는 形容語가 생겨났고 民間에 귀를 집이 조영되지 않아 국민에게 익숙하지 못하였던 校倉이 주로 京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았던 寺院建物の 한 구성원으로서 등장되어 있는 점등에서 校倉이라는 곳칭은 日本自生の 건조물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アゼクラ」는 그런 外來의 성격의 倉廩에 부친 日本式 俗名이고 그것의 本名은 校倉을 소개한 다른 나라에 남아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日本の 上代文化가 百濟나 高句麗에서 보급되는 文

물에 크게 영향되고 자극되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高句麗人 雲微이 日本에 건너가 활약하듯이 高句麗의 穀倉制法이 渡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귀틀집으로 짜는 「須梯升」의 「干蘭」式 建物樣式이 百濟에서 日本에 전하여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麻線溝古墳의 双倉 桴京은 그렇게 전하여진 校倉의 祖型일 수도 있고 桴京이란 명칭은 「アゼクラ」라는 日本語 俗稱의 本名일 수도 있다. 高句麗나 百濟에서 校倉造法이 전하여졌고 高句麗의 이름을 따라 그것을 桴京이라 부를 수도 있다고 假定된다면 壁畵에서 알 수 없었던 制法의 여러 法式을 거기에서 찾아내어 高句麗 桴京의 한 모습을 再現하여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된다.

百濟金銅小塔의 殘品을 놓고 百濟人이 지었다고 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 아래 조영된 法隆寺의 建造物을 통하여 百濟建築의 類型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듯이 「アゼクラ」의 現存遺構를 통하여 高句麗의 桴京과 「須梯升」의 百濟民家の 옛 모습을 再現하여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高句麗나 百濟의 建造物의 類型을 찾는 길은 이런 방식에 있다고 생각된다. 단편적인 國內의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三國時代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日本의 上代建造物에서 하나하나의 技法과 樣式을 발견하여 나가는 길이 전모를 찾는 접점이 될 것이다.

8

第宅이라고 우리가 한 말로 부르지만 그 이름의 뒤에는 三間、五間、七間 혹은 十五間、十八間、二十一間、二十四間 등의 다양한 규모의 住居가 있고 城內、城

外、山村、漁村 등의 자연환경에 따라 지어진 수백 종류의 住居建物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桴京이라 하여도 身分의 高下와 經濟力에 따라 그 모습은 천차만별 多樣하였을 것이다. 自然的인 여건에 따라 技法과 樣式에서 派生된 여러 類型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桴京의 한 모습을 高句麗古墳의 조그만 壁畵에서 찾아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國內에 殘存하여 있는 관제자료를 紐帶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 「アゼクラ」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여 볼 수 있을 만큼 전진할 기틀이 생겼다.

咸陽僻地 조그만 寒村에서 발견된 현대화된 小倉이 중국식 倉廩制度의 「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京」은 여러 倉庫와 다른 모습이며 특히 「京」의 특색이 四起 方形平面임을 알게 되었다.

四起 方形平面의 板壁 구조 중 현대화되기 이전의 板壁의 구성을 검토하다 귀틀집의 양식을 알게 되었고 四起 方形 귀틀집의 穀倉을 平壤부근에서 찾아내어 「京」의 「古形」을 얻었던 것이다.

귀틀집이 辰韓에 이미 있었고 四起가 百濟의 「須梯升」 高床式 建物과 類型이 같고 그것은 또 中國南方의 「干蘭」과 同類이며 「干蘭」은 積木하는 귀틀식 집이라는 점이 밝혀져 平壤부근의 四起 귀틀식 穀倉의 형태는 三國時代에 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三國時代의 家形土器가 지닌 정보를 추가하여 마침내 高句麗古墳 麻線溝의 第一號墳 壁에서 京의 「古形」과 같은 모습을 갖은 高句麗形 京을 찾아 내었고 그것이 京이라는 倉廩의 진물이므로 三國志 魏書에 보이는 「家家自有小倉、名之爲桴京」이라고 한 桴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던 것이라는 推論까지에 도달하였다.

麻線溝의 双倉 桴京은 百濟의 「須梯升」의 住居모습

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하여 주었고 日本의 「アゼクラ」라고 하는 校倉이 高句麗나 百濟를 통하여 傳來되었을 가능성이 길다는 假說을 제시하게 하였다.

그 假說을 일단 중요시하면 校倉을 통하여 壁畵나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는 高句麗의 桴京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 桴京의 技法과 樣式을 찾아 보는 것이 高句麗、百濟建築의 유형을 찾는 한 방법이라는 이야기까지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咸陽 鄭克相氏宅 小倉과 같은 京과 그의 「古形」이 더 많이 찾아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창차 더 충실한 방식으로 「桴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桴京 접근에 성공하면 桴京以來의 歷代 倉廩의 造營系譜는 그 윤곽을 틀어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제창하여 두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桴京」이라는 用語를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나가는 작업을 하였으면 좋겠고 穀物이나 小倉의 多稱을 「桴京」이라는 學名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桴京」이라고 표기된 고구려의 原語나 原音を 밝혀낼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성공을 전우게 될 것이다.

이 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교시하여 주신 여러분이 계시나 이 글에서 비약이나 誤判은 그 분들과는 無關한 것이다. 同學여러분의 敎示를 얻어 바로 잡아가자. 이 글이 되도록 힘은 李宗碩氏께 감사한다.

〔註〕

一、鄭汝昌 字伯勳 河東人 端宗二年(西紀一四五四

年) 出生, 成宗의 知遇를 얻어 昭格署參奉을 除授 하였으나 固辭, 成宗二一年에 登丙科, 藝文館檢閱이 되었다. 成宗二五年 安義縣監으로 스스로 나랏아 中央政界를 피하였다. 이때 지금의 介坪里에卜地하여 第宅을 마련하였다.

燕山廟 戊午史禍에 연좌되어 鍾城에 귀양가 있다가 五五세로 別世하였다. 인격이 고매하고 학식이 풍부하여 문하에 늘 제자들이 있었다. 後에 文廟에 配享되었다(據咸陽府邑誌 鄭汝昌碑)

二、徐有渠: 林園十六志 贍用志 卷二 炊爨之具 斗廚條 참조

三、上揭書 同條

四、上揭書 同條와 本林志 卷十一 農器圖說上 蓋藏之具條 참조

五、上揭書 贍用志 卷二 炊爨之具 日計條 참조

六、上揭書 贍用志 卷一 庫廩條

七、李瀛: 星湖僊說 人事門 焚地庫隸籍條 참조

八、宮闕志 昌德宮 宙合樓條

九、林園十六志 贍用志 卷一 庫廩條

一〇、上揭書

一一、稻葉岩吉: 百濟의 椋及び椋部・「釋京」所載

一九三六年十一月刊

一二、三國志 魏志 東夷傳

一三、椋京의 고구려식 發音에 대하여는 國語學者들의 힘을 빌어야 할 것이다. 咸南地方에서는 倉을 「구리」 혹은 「우구리」라고 부른다니 方言들을 더 조사하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一四、三國志 魏書 卷三〇 辰韓條 裴松之註를 참조

一五、野村孝文: 朝鮮住宅의 變遷의 概要・「朝鮮と建築」第二輯一〇號 참조

一六、金元龍: 新羅家形土器考―古代韓國에 있어서의 南方的 要素―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所收

一九六九年 乙酉文化社刊

一七、金正基: 高句麗壁畫古墳에서 보는 木造建物・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所載

一八、岡田秀雄: 北鮮의 校倉・書說 一九四二年二月號

一九、足立康: 校倉に就いて・建築史 一輯六號

〈追記〉

鄭克相氏宅 小倉에 관심을 갖은 후로 慶北 順興地方과 江原道 平昌郡에서 새로운 자료 四點을 조사하였고 普陽郡 靑谷과 宣寧郡 上井에서도 대나무로 판 困을 새로 찾아낼 수 있었다.

順興地方의 小倉은 木造板壁인데 비하여 平昌의 小倉은 四起한 부분에 가느다란 등구리 나무를 박아 圍壁하고 草葺하여 또다른 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店村과 順興地方의 圓두막이 이렇게 생긴 모습과 유사하여서 새로운 주목을 하게 되었다. 名地方에 散在하여 있는 圓두막類의 建造物도 四起한 高床式建物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되겠고, 그 建造物이 성격상 가장 소박한 結構技法으로 架構되어 있고 그 소박한 架構는 技能과 道具의 發達이 미진하던 古代의 모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추정할 만한 餘地를 남기고 있어서 四起建物의 類型을 고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小倉과 圓두막의 古形에서 上代 建造物의 技法을 찾을 준비를 하여야겠다.

(文化財專門委員)